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흥관



안데스 산맥에 자생하는 풀이 있었다. 토착 원주민들이 그 풀에 무슨 이유에선지 불을 붙여 싹이 되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습관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의 담배는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지나 일본까지 전해졌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월 동안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250명인데 담배 때문에 이를 동안 사망하는 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질환이며, 3위는 심장혈관 질환인데 담배는 위의 세 가지 모두에 주된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대통령인도 보

간접흡연을 없애야 건강 선진국

건복지부 장관이든 의사든 치과의사든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담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원인 4위는 자살인데 우연찮게도 흡연자들은 자살률도 높다.

처음에 금연운동을 할 때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주장했는데 점차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금연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제는 흡연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해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간접흡연으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간접흡

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간접흡연은 천식을 악화시키고,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도 코와 눈의 따가움, 가슴 답답함을 일으켜 불쾌감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금연구역은 오로지 보건복지

후계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금연으로 선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집 흡연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었던 이웃 주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실내든 실외든 간접흡연을 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4천만의 비흡연자들은 천만의 흡연자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에도 보장되고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아사람이 흡연할 때 뒤따라가면서 담배연기를 맡는 불쾌감을 호소한다. 이제는 혼잡한 거리와 체육경기장 관람석처럼 사람이 조밀한 공간에서는 모든 실외공간도 금연이 선포될 전망이다.

흡연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초조해 하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밀어붙인다고 불쾌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자유는 있지만 남들을 불쾌하게 하면서 고성방가를 부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듯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하게 만들 권리는 없는 셈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의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성남시 재정과탄 이 지역도 남의 일 아니다

경기 성남시가 호화 청사 신축으로 쌓이는 빚 때문에 결국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5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파산에 준하는 심각한 사태다.

문제는 재정 악화로 살림살이가 휘청거리는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광주·전남이 가장 많다는 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여수시가 3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목포시 164억원 등 대부분의 시·군이 적자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역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국 광역시와 단체 가운데 최하위다. 올해 광주시가 47.5%, 전남도는 20.6%에 불과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 미만이 6개 군에 달하고 10% 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에서는 동구와

남구, 전남에서는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완도 등 9곳에 달한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지방 확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큰 요인이다.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나 차별화 없는 축제 등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먼저 지방 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회는 예산 심의에 있어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예산 편성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확대해서 흉악범죄 막아야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과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까지 소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무려 6천916명에 이르며 이중 3천739명은 아무 제한없이 대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법 시행에 맞춰 이들 성범죄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찢값을 치르고 출소한 성폭력범에게 또다시 전자발찌라는 도구를 이용해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여성생을 성폭행·살해한 김길태가 이미 두 번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도 또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보다 훨씬 높다. 성범죄 전과자가 재한 없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자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 472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전자발찌 도입 이전 성범죄자의 재범률 5.2%포인트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실시간 위치추적 되는 전자발찌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범의(犯意)가 여의치 않은 데다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추적 정보를 통해 쉽게 체포될 것을 의식한 탓도 크다.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범은 물론 재범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 방화범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재범률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상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에 발생하는 질환은 감기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다. 그런데 치과 질환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치료를 미루기 십상이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래에는 치아가 빠진 경우 환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임플란트 치료이다.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 임플란트는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골치유로 10년 성공률 90% 이상의 안정적인 치료법이며, 국내의료진의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

전체적으로 잇몸이 내려가면 검은색의 티타늄 금속이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앞니부분에는 치아 색과 유사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치아와 같은 흰색이기에 잇몸이 얇은 경우에도 비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며, 흑색 나이가 들어 잇몸이 내려가 노출되어도 옆 치아와 비슷하기에 심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르코니아는 임플란트 재료로 새롭

기고

주옥균



국가의 대응책을 이루고 있는 4대강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지상에 발표된 총 사업비 배정표를 보면 우선순위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영산강 수질 오염의 제일 주범인 광주 생활 오수와 산업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수질오염 비용은 전체 예산의 1.8%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토목공사만 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수질개선 사업은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근본적으로 생태복원을 마무리해

는 물을 담수하여 건전화를 예방하고 홍수 시에는 가동보를 작동하면 퇴적층도 방류될 것이다.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이 1200mm정도로 상류에 오염원만 없다면 찌지 않는다. 황토강에 보를 설치해 광주시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점은 이를 반증한다. 상수호로 되어있는 하구 독은 통수 단면을 홍수조절용도로 확장해 물이 흐르며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주평야 농업용수는 상류에서 용수를 공급하면 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989년 영산강이 범람하여 용산교와 용두교가 유실되고

영산강, 수질개선·홍수예방 대책 시급

지난 시질의 잘못을 깨우치고 후세에 부끄러움 없이 넘겨주어야 한다.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은 흐름으로써 자정작용을 일으켜 맑은 물이 된다. 그런데 영산강 하구는 독을 쌓아 담수호가 됐고, 상류는 4개 댐을 막아 건전화가 되어 있다. 광주를 비롯한 인근 8개 시군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와 농약 등은 여과 없이 유입되어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광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를 하수관개 분리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한다. 상류는 4개 농업용수전용 댐을 개방해서라도 하천의무 방류량을 흘러보내든지 아니면 다목적댐으로 확충해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해야 한다.

상류에 이러한 해결책이 안 된다면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건전화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소·돼지 가축은 물론 인명 실종과 가옥 파손, 침수 등으로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다. 그나마 1995년 당시 강은태 광주시장이 국비나 시비 없이 민자를 유치, 200년 빈도의 홍수 위선을 1.1m 내려 하상준설과 고수부지 정비 등을 완료해 이후 홍수 피해는 없었다.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청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계절라성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류 준설은 시급한 실정이다.

영산강 개발 사업을 하려면 4개월 환경영향평가와 수리모형실험을 해 지역별 생태는 어떻게 변하고 수량과 수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 분석과 설득, 접근방식이 선행되면 반대론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홍수 예방대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과 시·도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수광주도료관리 시장·전 광주시 건설국장〉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 암체주차... 양심지켰으면

얼마 전 간식거리를 좀 살려고 대형 마트에 갔던 적이 있었다. 마트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나도 차를 주차하기 위해 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았다. 그러던 중 장애인 차량 한 대가 차를 대지 못한 채 빙빙 도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내가 바로 전에 지나쳐온 곳에는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이 비어 있었기에 그 장애인은 금세 그곳에 댈 수 있을 거라 생각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비장애인이 탑승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 요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버젓이 차를 대고 있는 유유하 나오는 것이 보였다. 결국, 장애인 차량은 차를 대지 못하고 공간을 찾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남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왔다. ■부녀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자연스러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을 뿐만 아니라 국산 임플란트 제품들 또한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아름다운 미소는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미소와 건강한 치아는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니는 어떤 부위보다도 심미와 관련이 있어 다른 어금니 부위가 빠지면 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앞니가 빠지면 치과를 바로 찾는다. 그만큼 남에게 보이는 부위는 심미적인 면이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위는 위쪽 앞니다. 어금니 쪽 치아들은 기능 회복이 주안점이기에 잘 씹으면 만족한다. 그러나 앞니 특히 위쪽 앞니는 잘 씹는 것 보다는 얼마나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가에 더 관심이 있다. 기존의 티타늄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검은 금속색을 가지고 있어 잇몸이 얇은 경우에는 검게 비쳐 보이게 된다. 또한 자연치도 나이가 들어 가거나 잇몸에 열증이 발생되면 잇몸이 내려가 이 뿌리가 노출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처음에는 보기 좋았던 경우에도 세월이 지나

게 연구되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재료는 아니고 그 동안 치과에서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가 포세린으로만 만들어진 완전도재관이라는 심미적인 인공치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던 치아는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니는 어떤 부위보다도 심미와 관련이 있어 다른 어금니 부위가 빠지면 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앞니가 빠지면 치과를 바로 찾는다. 그만큼 남에게 보이는 부위는 심미적인 면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상용화되어 환자에게 사용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검증도 어느 정도 완료된 안정된 치료 기술이다. 그러나 티타늄 임플란트와 달리 국내 회사 제품이 아직 없기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많은 시술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희 대학병원 보철과에서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국내회사와 손잡고 국산제품화에 노력 중이다. 국내에서도 심미적인 보철물이 필요한 앞니 부위에는 티타늄 임플란트보다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

〈전남대 치과병원 보철과 교수〉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